

## 회상하기 프로그램이 알츠하이머 노인의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영향

김수정\*, 장현진\*\*

\*대구대학교 특수교육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

\*\*부산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 교수

### 국문초록

**목적:** 회상하기는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에게 심리적 측면에서 안정을 찾는 방안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면서 의사소통에 대해 접근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알츠하이머 치매노인에게 회상하기 프로그램에 적응하여 의사소통 능력의 효과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70세 노인 중 알츠하이머 치매(Alzheimer's dementia: AD) 노인 4명을 대상으로 사전-치료-사후 평가 단계를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결과:** 첫째, 의사소통 요소 중 회화항목 영역에서 중재 후에 향상되었다. 둘째, 의사소통 요소 중 인지력 인식 영역에서 중재 후에 향상되었다. 셋째, 의사소통 요소 중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 중재 후에 향상되었다.

**결론:** 이 연구에서는 회상하기 프로그램이 알츠하이머 치매 노인이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회상하기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추후 치매 노인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알츠하이머, 의사소통, 치매 노인, 회상하기

## I. 서론

현재 우리나라는 문명 발달로 인해, 생활수준 향상을 더불어 현대의학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났다. 이에 우리

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전체 인구의 13.8%이며, 2026년에는 20%가 될 것이며,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한다(Statistics Korea, 2017). 고령화가 될수록 다양한 건강 문제를 갖게 되고, 고혈압, 관절염, 당뇨 등의 만성

교신저자 : 장현진(changhj26@cup.ac.kr)

|| 접수일: 2020.07.28

|| 심사일: 2020.10.17

|| 게재승인일: 2020.10.21

논문은 김수정(2006)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질환을 증가하게 된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5). 특히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은 치매이다(Park, 2017). 초기 노인 치매환자와 노인성 치매환자를 불문하고 주된 병인은 알츠하이머 치매(Alzheimer's dementia: AD)이다. 이러한 AD 노인들이 나타내는 증상들의 대부분은 신경세포의 파괴와 관계되어 점진적인 악화를 보이는 것이고, 일부는 이러한 질병과정에 대한 심리정서적인 반응의 결과로 초래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치매 환자의 경우 의사소통하기가 어려운 현상이 발생하고 장애를 가지게 된다. 치매 환자는 누구나 그 특징이나 정도에 차이는 있으나 의사소통 장애를 가지고 생활하게 된다(Bayles, 1982). 언어치료 분야에서도 AD 노인을 중심으로 의사소통, 표현 및 수용언어 능력의 특성에 대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다(Choi & Choi, 2013; Kim, 2017; Kim & Lee, 2016; Lim, Kwon, Sim, Kim, & Lee, 2014; Shune & Duff, 2012). AD 노인의 언어특성 중 대표적인 특성은 어휘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며, 단어 찾기에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Kempler, 1991). AD 노인 대상자들은 주제 유지하기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으며(Dijkstra, Bourgeois, Allen, & Burgio, 2004), 장황하게 말하기(Appell, Kertesz, & Fisman, 1982)와 같은 화용론적 특성을 보인다.

언어장애는 발병 초기부터 나타날 수는 있으나, 그 정도가 미약한데 주로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지 못하는 명명하기 장애가 특징적이다. 언어기능의 장애는 치매가 진행되면 쓰고 말하는 능력, 이름과 문장의 결합, 외부 언어를 이해하고 그에 따라 수행하는 능력, 일상적인 대화능력의 상실을 뜻한다. 그 정도나 유형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치매가 진행되어 갈수록 그 증세가 악화되어가며 결국은 거의 모든 언어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이렇듯 알츠하이머 치매는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되지만, 퇴행성으로 점점 악화되게 되는데 말기단계에 병이 진행되면서부터는 심각한 기억 및 언어, 의사소통의 문제, 더욱 다양한 시공간 문제, 전반적인 지적 기능이 퇴보되는 현상 등을 나타낸다. AD 노인은 음운론적, 구문론적 규칙은 일상적인 언어적 의사소통에서 그대로 보전되지

만 의미와 단어연관성에 대한 지식 즉, 의미론적 지식은 치매 진행과정 동안 점진적으로 감소된다. 중등도의 심한 환자는 이름대기, 정의하기 과업에서 그 개념이 없어진다. 따라서 이름대기의 결함 또한 알츠하이머 환자의 흔한 언어문제라고 볼 수 있다. 반면 타인에게 인사하는 언어의 사용 즉, 화용론적 지식은 고도의 지적인 과정의 주의력 없이 실행되는 것으로 나타난다(Kim & Lee, 2016). 이러한 언어적 문제와 함께 치매증후군을 정의하는 기억의 결함은 정상적으로 의사소통하는 환자의 능력을 점점 퇴보시킨다고 볼 수 있다. 점진적으로 퇴보하는 기억과 함께 개념에 접근하기와 언어적 표현, 의미 있는 이야기 만들기, 단어나 내용의 의미를 이해하기에 어려움을 갖는다.

AD 노인의 전반적인 언어능력보다는 회상에 보다 다양한 형태의 인지과정과 정서과정이 관련되는 다측면적인 과정이다(Preifer & Gambert, 1984). Jeon(1989)은 회상의 개념분석을 통해 "회상은 다양한 측면의 정신과정으로 의도적으로나 뚜렷한 목적 없이 과거에 관해 생각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으로 인지과정, 정서과정, 언어를 통한 사회 상호작용이 관련되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내렸다. 지금까지 심리적인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증재방안으로 심리요법, 오락요법, 인지훈련, 회상요법 등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는데 이들 중 대부분은 장기간의 특수훈련이 필요하므로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회상요법은 들을 준비가 되어있고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였다(Butler, 1963). 회상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개인적인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려 자신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통합하고 자아에 대한 새로운 사고를 하여 삶의 의미를 재평가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노년기, 특히 치매노인에게 있어 회상은 결과적으로 정서적인 측면과 연계되는 의사소통적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관에서 회상은 치매노인 스스로가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과거 경험을 이용하여 인지과정, 정서과정, 언어를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도모함으로써 재통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인의 우울 감소 및 자아통합감

증진, 대처능력의 향상, 인지기능 증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Jeon, 1989; Kim, 1998; Kim, 2002a). 그러나 아직까지 치매노인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정서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적 측면을 함께한 연구도 초보적인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근거들을 토대로 AD 노인에게 회상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의사소통능력이 향상 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 절차

본 연구 절차는 사전 평가-회상하기 치료프로그램-사 후 평가로 이루어져 있다. 치료 전-후, 사전-사후 AD 노인 들의 의사소통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평가하기 위해 Holden Communication 평가척도(Kim, 2002b)를 실시하 였다. 회상하기 프로그램은 AD 노인들이 기억을 떠올려 서 현재까지 상황에 대해 연구자와 함께 1:1로 실시한다. 회상하기 프로그램은 도입하기, 회상하기, 회고하기 단 계로 구성하였다.

### 2. 연구 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광역시에 위치한 ○○병원에 입원 중인 70세 이상 노인 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 상의 선정기준은 1) 신경과 전문의에 의해 우울증을 동반 한 알츠하이머성 치매노인으로 판단되는 자, 2) 시청각 장애가 심하지 않고 손상이 없는 자, 3)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4) 치료받기를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자로 하였다. 대상자 개인별 특성은 Table 1과 같다.

## 3. 연구 도구

### 1) 사전-사후 평가 도구

사전-사후 평가는 Holden Communication 평가척도 (Appendix 1)를 사용하였다. 이 평가는 치매환자의 감정 표현 및 의사소통이 얼마나 증진되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모두 12항목으로 이루어져 크게 회화, 인지 력과 인식, 커뮤니케이션으로 구성되어있다. 모든 문항 의 점수를 합산한 총점으로 하며 점수가 낮을수록 의사소 통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Holden Communication 평가 척도는 현실감각훈련과 회상치료 프로그램의 평가에 있 어서 널리 사용되며 좋은 평가를 내고 있다(Kim, 2002b).

이 척도는 득점이 25점 이상이라면 환자는 상당히 기 본적인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집단에서는 무엇인가 해 나갈 수 있는 것을 나타내며, 득점이 15-24점 사이라 면 장애의 정도는 약간 가벼운 정도로 좀 더 과제가 많은 집단에 들어가도 괜찮다는 것을 나타낸다. 득점이 15점 미만이라면 장애는 훨씬 가벼우며, 기술과 지시가 그다 지 필요 없는 집단에서 충분히 활동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 2) 회상하기 중재 프로그램

회상하기 프로그램은 Butler(1963)의 회상요법을 연구 에 맞게 연구자가 새롭게 수정·보완하였다. 프로그램 단 계는 도입, 회상, 회고 단계로 구성되었다(Figure 1).

#### (1) 도입 단계

도입 단계에서는 최근 기억을 돕고, 프로그램 적용

Table 1. Information of Subjects

Subject	Gender	Age	Education	Degree of severity
S1	Female	78	Illiteracy	Severe
S2	Female	73	Illiteracy	Severe
S3	Female	77	Illiteracy	Severe
S4	Female	75	Graduation in elementary school	Seve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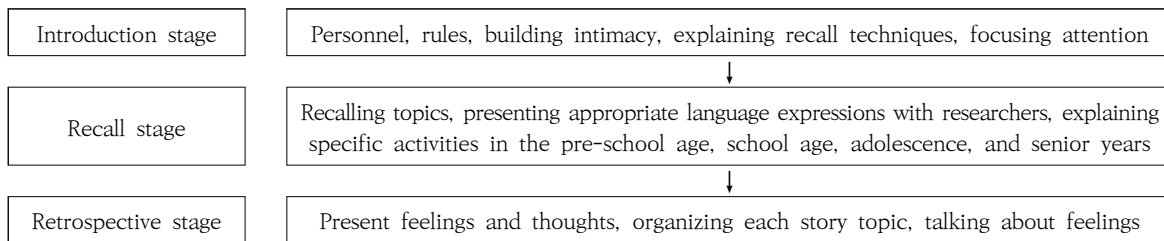


Figure 1. Composition of Treatment Stages

전에 친밀감과 편안함을 만들 수 있도록 환자와 가까이 앉아서 인사를 나누며 대화한다. 또한 대상자의 기분을 살피고, 최근에 경험한 일들과 주제에 따라 회상하기 하는 방법에 대해 치매노인을 충분히 이해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 (2) 회상 단계

회상 단계에서는 매 회기 Table 2에 제시된 주제에 대해서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 언어적 표현을 살려서 의사 소통 하도록 돕는다. 치료사는 각 주제에 대해서 개방형 질문 후 이야기를 나눈다. 대상자가 개방적 질문을 어려워 할 경우 선택형 질문을 한다. 연구자는 주제유지에

어려움을 느끼는 환자를 도와주고 언어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 짧은 문장을 사용하여 명확히 전달을 하며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 흐려지거나 끊기려고 할 때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의 단어를 반복하여 복창해준다. 대상자가 회상하기와 언어적 표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잘 수행하지 못한다면, 시청각적 단서를 제시하여 언어적 표현을 촉진시킨다. 가장 중요한 점은 대상자가 회상하여 표현한 내용에 대하여 공감하기, 긍정적·정서적 반영, 수용적인 자세를 가지고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able 2. Topics of Recall Program

Number	Topic	Recalling content
1	Talking about me	Talk about your hometown and surroundings.
2	Places I used to enjoy	Talk about places you enjoyed by your parents or as a group.
3	Childhood play	Talk about a place you enjoyed by your parents or group life.
4	Someone you want to meet	Talk about someone you want to see and see again with your old memories.
5	Proud memories	Tell stories of compliments or awards.
6	Favorite food	Talk about your favorite food for a long time.
7	Holiday	Talk about childhood and adult holidays.
8	An auspicious day	Talk about marriage and childbirth.
9	6.25	This brings about the 6.25 story.
10	When I was sick	Tell about an experience in which your body or mind hurt.
11	Job	Talk about your responsibilities as a child and as an adult in the Job.
12	Summer memories	Tell a story about a fun or difficult experience in the summer.
13	Winter memories	Tell a story about a fun or difficult experience in the winter.
14	Old clothes	Talk about clothing and fashion at that time as a child or as an adult.
15	Retrospect	Take time to think about and recapture the subject so far.

#### 4. 실험 장소

실험 장소는 ○○광역시에 위치한 ○○병원의 정신건강치료실로, 주 2회 약 50분간 실시하였다. 치료실은 밝고 원탁이 놓인 환경이었으며, 프로그램은 치료사와 서로 친밀한 정도의 거리에서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진행되었다. 실험기간은 2004년 11월 15일부터 2005년 2월 25일까지 15주 동안 주 2회씩 30회기를 실시하였다.

#### 5. 자료 처리

회상하기 프로그램이 AD 노인에게 적용했을 때 의사소통 능력 회화, 인지,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각 평가의 원점수를 활용하여 사전-사후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하위 항목별 개선 정도

##### 1) 회화 항목

의사소통 척도의 회화 항목에 관해서 대상자 1, 2, 3, 4의 개선정도의 변화를 Figure 2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회화 항목에서 대상자 1은 사전평가에 12점에서 사후평가에 6점으로 6점 감소하였으며, 대상자 2는 10점에서 7점으로 3점, 대상자 3은 14점에서 6점으로 8점, 대상자 4는 10점에서 7점으로 3점 감소하였다. 대상자 1, 3이 많은 향상을 보였다(Figure 2).

##### 2) 인지력과 인식 항목 개선 정도

인지력과 인식 항목에 관해서 대상자 1, 2, 3, 4의 개선정도의 변화를 Figure 3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인지력과 인식 항목에서 대상자 1은 사전평가에 12점에서 사후평가에 7점으로 5점 감소하였으며, 대상자 2는 1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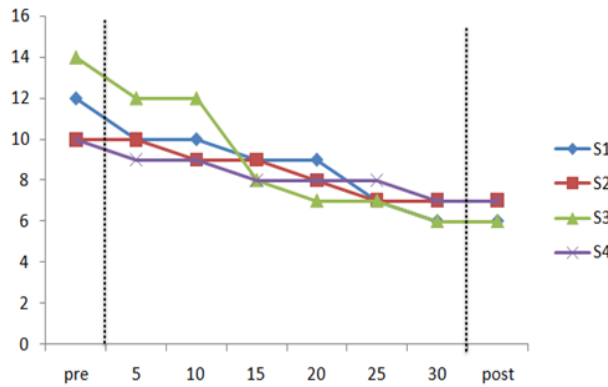


Figure 2. Improvement in Conversational Items by Subj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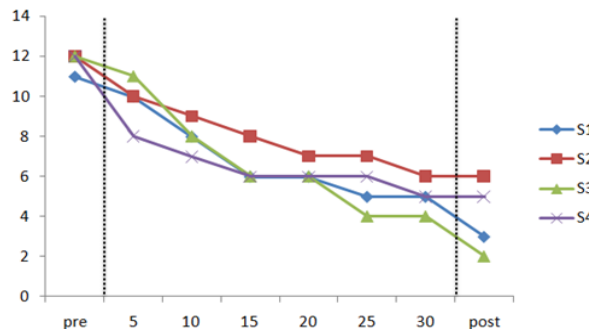


Figure 3. Improvement in Cognitive Ability and Recognition Items by Subj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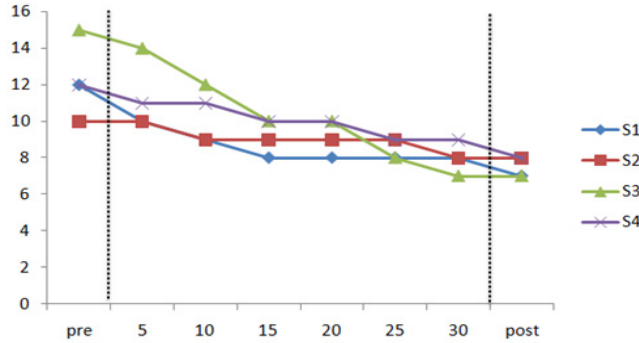


Figure 4. Improvement in Communication Items by Subjects

에서 8점으로 2점, 대상자 3은 15점에서 7점으로 8점 감소, 대상자 4는 12점에서 8점으로 4점 감소하였다. 인지와 인식 항목에서도 대상자 3이 가장 많은 향상을 나타내었다(Figure 3).

### 3) 커뮤니케이션 항목 개선 정도

커뮤니케이션 항목에 관해서 대상자 1, 2, 3, 4의 개선 정도의 변화를 Figure 4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커뮤니케이션 항목에서 대상자 1은 사전평가에 11점에서 사후평가에 3점으로 8점 감소하였으며, 대상자 2는 12점에서 6점으로 6점, 대상자 3은 12점에서 2점으로 10점, 대상자 4는 12점에서 5점으로 7점 감소하였다. 대상자 1, 3이 많은 향상을 나타내었다(Figure 4).

## 2. 대상자별 개선 정도

### 1) 대상자 1

대상자 1은 의사소통척도에서 35점으로 상당히 기본적인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집단에 들어가도 무방하다고 평가되었으나 치료 후, 의사소통척도에서는 16점으로 장애는 약간 가벼운 정도로 좀 더 과제가 많은 집단에 들어가도 무방하다고 평가되었다. 대상자 1은 치료초기에 항상 표정이 어둡고 의욕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예전 이야기하기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연구자와 함께 친밀감을 조성하고 점점 치료를 해나가면서 호기심과 흥미를 보이게 되었다. 초기 치료 단계에서 고향에 대해 회상을

할 때, 자신이 예전에 살던 고향인 김천에 가서 부모님과 친구를 보고 싶다고 말하면서 젊었을 때의 그리움의 표현을 많이 하였다. 치료 전에는 항상 심각하고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우울한 면을 많이 보였지만 치료하는 상황에서 연구자와 함께 예전의 추억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다가 웃음도 보이고 관심을 보였다.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했던 말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말을 하려는 의지나 대화 의욕이 없었으나 연구자와 함께 회상하여 언어적 표현을 하는 과정에서 표현력이나 주변에 대한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추측된다.

### 2) 대상자 2

대상자 2는 상당히 기본적인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집단에서는 무언가 해 나갈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치료 후, 의사소통 척도는 21점을 나타내었다. 특히 대상자 2는 연구대상자 중 의사소통능력에서 가장 저조한 향상을 보였다. 치료 초기에는 웃으면서 대답만 할 뿐, 회상을 하는 단계에서도 거의 '그랬어', '그렇게 하면 안돼', '그래 같이 단답식으로만 대답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말을 많이 하는 것을 귀찮아하는 모습을 보였다. 차츰 회기가 거듭되자 회상을 하는 동안 연구자가 자료를 제시하고 일어난 일 혹은 사진, 사람에 대해 지각시켜줌으로써 흥미를 조금씩 보인 것으로 추측된다. 회상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과거를 숨기려는 태도를 보였으나 연구자가 궁금해 하는 듯이 많은 관심을 보이자 차츰 과거 기억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주로 전정 상황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장소나 힘들었던 일, 상황 등을 상세히 표현하였3  
으며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때 상황으로 돌아가기는 싫다  
고 말하였다.

### 3) 대상자 3

대상자 3은 의사소통 척도에서는 41점으로 나타나 상  
당히 기본적인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집단에서는 무언  
가 해 나갈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치료 후,  
의사소통 척도에서는 15점으로 나타나 장애는 훨씬 가볍  
고 기술과 지시가 그다지 필요 없는 집단에서 충분히  
활동가능하고 평가되었다. 특히 연구대상 중 대상자 3은  
가장 많은 향상을 보였다.

치료 초기에는 거의 혼자 앉아서 사색에 잠겨있거나,  
우울해 보이는 모습을 많이 보였으며 누가 말을 걸어도  
반응하지 않거나 말을 잘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점차 치료 회기가 거듭될수록 가끔씩 영똥한 모습을 보이  
거나 '난 잘 몰라'라는 말은 하였으나, 회상에 대해 점점  
흥미와 관심은 보이기 시작했다. 회상하는 과정에서 기억  
나는 인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신의 사촌오빠가 공부를  
가르쳐주러 집에 왔었다는 말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고맙게 생각한다'고 자신의 의견도 표현하였다.  
치료 후반부쯤에 대상자 3은 회상을 하기 위한 자료에  
대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고 웃으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대화를 하고 지난날의 과거를  
정리하면서 가장 깊게 생각할만한 의견을 표현하였다. 연  
구자와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상황자체에 많은 흥미  
를 느끼는 것으로 보아 더 높은 향상을 나타내지 않았나  
추측된다.

### 4) 대상자 4

대상자 4는 MMSE-K(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검사에서 13점으로 중증치매였고,  
의사소통 척도에서는 34점으로 나타나 상당히 기본적  
인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집단에서는 무언가 해  
나갈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치료 후, 의사소통  
능력척도에서는 20점으로 나타나 장애의 정도는 약간

가벼운 정도로 좀 더 과제가 많은 집단에 들어가도  
무방하다고 평가되었다.

치료 초기에는 웃으면서 맞아주긴 하였으나, 회상하기  
를 귀찮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빨리 가서 밥해주고 집을  
 봐야한다고 하면서 자리를 피하려하였으며 병원 내에서  
도 실내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주변사람을 나무라고 꾸짖  
는 행동을 보였다. 연구자가 회상에 대한 설득을 하고  
 자주 얼굴을 비추고 친밀하게 행동한 결과 서서히 치료  
가 전개되었는데 단순히 상대방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  
서 막연히 그런 태도를 취한 것으로 추측된다. 자신의  
어렸을 때 놀이를 회상하면서 주로 친언니의 친구와 함께  
무리를 지어 놀러 다녔던 어린 시절의 그리움을 표현하였  
으며 결혼 후에도 자주 고향에 친구들을 만나러 갔었다고  
회상하였다.

## IV. 고찰

본 연구 결과에서 프로그램 실시 후에 AD 노인의 의사  
소통능력에 있어서 모두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첫  
째, 대상자들은 모두 회화 항목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  
타났다. 이는 Kang(2015)은 회화 항목인 일반적인 소재,  
일반적 지식, 주변 사람들의 이름에 대한 관심 등에서  
향상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보고 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동일한 결과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서 사용한 회상하기 기법이 AD 노인들에게 회화 항목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대상자들은 모두 인지와 인식 항목에서 모두  
긍정적인 변화가 타나났다. 이는 Park(2004)의 연구에서  
회상하기 기법을 적용하여 치매 노인들의 인지 기능의 변화  
를 알아본 회상하기 기법을 적용한 집단이 적용하지 않은  
집단보다 인지력이 향상되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Park(2007)의 연구에서 집단회상 기법이 노인의 인지기능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와 같은 결과임을  
알 수 있었다. Park(2012)의 연구에서도 회상하기 기법이 치매  
노인의 인지 기능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밝혔다. AD  
노인의 기억력이 손상이 심해지면, 직업, 학력, 생일, 가족

이름도 잃어버리며, 또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 등에 대해서도 기억하지 못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도 대상자 모두에게 다양한 주제의 회상하기를 활용하여, 기억력이 약화되는 영역에 대해 자극을 제공하여, AD 노인의 인지력과 인식 영역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대상자들은 모두 커뮤니케이션에서 항목에서 모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AD 노인의 경우 담화 특성 중, 주제를 유지하는 것과,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 중에 주제를 안내하고, 변경하고, 상황을 설명하고,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Kim, 2017). AD 노인들은 대화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청자에게 정보를 적절하게 전달하지 못하게 된다. 본 연구 대상자들도 회상하기 치료하기 전에는 이러한 의사소통 능력은 선행연구의 AD 노인들과 동일한 특성을 보였다. 대상자들은 회상하기 기법을 적용한 후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Yoon(2003)이 회상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된 결과와 Kim(2002b)의 회상이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 등을 증가시켜준다는 보고와도 일치하므로 본 연구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회상하기 프로그램이 AD 노인의 인지, 정서 및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얻은 주요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회상하기 프로그램을 AD 노인에게 실시한 후, 치료의 개선 정도를 비교해본 결과 대상자 모두 의사소통능력에서 향상을 보였다. 치매노인이 회상을 하여 본 연구자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의사소통하는 모든 측면에 관심을 보이고 의욕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으로 자기표현력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 V. 결 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회상하기 프로그램이 AD 노인의 인지, 정서 및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얻은 주요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회상하기 프로그램을 AD 노인에게 실시한 후, 치료의 개선 정도를 비교해본 결과 대상자 모두 의사소통능력

에서 향상을 보였다. 치매노인이 회상을 하여 본 연구자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의사소통하는 모든 측면에 관심을 보이고 의욕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으로 자기표현력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과 결론을 바탕으로 앞으로 계속 연구되어야 할 과제인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의 수가 4명으로 제한적이었으나,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를 일반화시키기 위해 후속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수를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회상하기의 이야기 주제에 있어 다소 제한적이었으나, 치매노인의 보다 높은 잠재적인 능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하고 개개인의 관심사에 맞는 이야기 내용으로 맞추도록 노력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의 효과로 나타난 의사소통능력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의 결과를 내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그러한 자료를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를 AD 노인으로 정하여 적용시켰으나 후속연구에서는 다른 원인에 의한 다양한 노인성 질환의 대상자에게도 회상프로그램의 효과를 확대시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후속연구에서는 장기간의 자료 수집을 거치더라도 무엇보다 대상자 각각의 개별적 특성에 접근하여 회상의 자료 및 방법에 있어서 보다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다양한 유형의 회상을 통해 치매노인은 즐거운 과거의 기억과 억압되어 있던 부정적인 감정의 해소를 하며, 언어적 표현활동을 통해 자부심과 성취감을 느끼게 되어 결국은 대인관계의 의사소통 및 사회적 상호작용의 증진을 도우는 것이므로 치료활동에 있어 매우 의미적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 외에도 앞으로 체계적이면서도 치매노인의 개인적 특성에 맞는 더욱 다양한 회상프로그램을 개발해내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성 질환에 대비하여 손쉽게 다방면으로 적용이 가능했으면 한다. 그리하여 치매노인의 취약점이라 할 수 있는 인지, 정서 및 의사소통에 있어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상프로그램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 Appell, J., Kertesz, A., & Fisman, M. (1982). A study of language functioning in Alzheimer patient. *Brain and Language*, 17(1), 73-91. doi:10.1016/0093-934X(82)90006-2
- Bayles, K. A. (1982). Language function in senile dementia. *Brain and Language*, 16(2), 265-280. doi:10.1016/0093-934X(82)90086-4
- Bulter, R. N. (1963). The life review: An interpretation of reminiscence in the aged. *Journal of Psychiatry*, 26(1), 65-76. doi:10.7312/stei93738-029
- Choi, C. S., & Choi, H. J. (2013). Story comprehension ability in patients with MCI and DAT. *Journal of Speech & Hearing Disorders*, 22(4), 159-180.
- Dijkstra, K., Bourgeois, M. S., Allen, R. S., & Burgio, L. D. (2004). Conversational coherence discourse analysis of older adults with and without dementia. *Journal of Neurolinguistics*, 17(4), 263-283. doi:10.1016/S0911-6044(03)00048-4
- Jeon, S. J. (1989). *Reminiscence: Content analysis and its nursing implication* (Unpublished Doctor's degree). Yonsei University, Seoul.
- Kempler, D. (1991). Language changes in dementia of the Alzheimer type. In R. Lubinski(Ed.), *Dementia and Communication* (1st ed., pp. 98-114). Philadelphia: B. C. Decker, inc.
- Kim, J. C., & Lee, Y. K. (2016). A comparison of word semantic comprehension ability in dementia patients with Alzheimer's disease: Focused on a verb and an adjective descriptions. *Journal of Speech & Hearing Disorders*, 25(1), 37-44. doi:10.15724/jslhd.2016.25.1.004
- Kim, S. Y. (1998). *Effect of a group reminiscence therapy on pain, depression and self-esteem of the elderly: Focused on institutional elderly with chronic pain* (Master's thesis). Kyungsoong University, Gyeongnam.
- Kim, Y. J. (2002a). Influence of reminiscence of the Korean female elderly on ego-integrity.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18(1), 207-229.
- Kim, Y. K. (2017). *Characteristics of macrostructure and microstructure appeared in narrative discourse of dementia and normal elderly persons* (Master's thesis). Yoosong University, Daejeon.
- Kim, Y. S. (2002b). *An integrated approach to dementia*. Seoul, KR: Educational sciences publishing company.
- Lim, S. H., Kwon, M. S., Sim, H. S., Kim, S. Y., & Lee, J. Y. (2014). Word definition ability in patients with Alzheimer's disease. *Dementia and Neurocognitive Disorders*, 13(1), 7-15. doi:10.12779/dnd.2014.13.1.7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5). *2014 press release of results of surve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elderly* (2015. 4. 1). Retrieved from <http://www.mohw.go.kr>
- Park, H. S. (2012). *Effectiveness of therapies for dementia research recall: Cognitive function, depression, life skills center* (Master's thesis). Mokwon University, Daejeon.
- Park, K. A. (2007).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group reminiscence program on the depression and cognitive ability of patients with severe dementia: The case of patients in geriatric hospital*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Park, M. J. (2004).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reminiscence therapy for the demented elderly: Centered on the improvement of the cognition memory, behavior problems and the activity of daily living* (Master's thesis). Mokwon University, Daejeon.
- Park, W. J. (2017). Trends analysis of characteristics in patient with dementia.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1), 202-209. doi:10.5762/KAIS.2017.18.1.202
- Preifer, B. A., & Gambert, S. R. (1984). Reminiscence and life review in the elderly. *Psychiatric Medicine*, 13(1), 91-100.
- Shune, S., & Duff, M. C. (2012). Verbal play as an interactional discourse resource in early stage Alzheimer's disease. *Aphasiology*, 26(6), 811-825. doi:10.1080/02687038.2011.650626
- Statistics Korea. (2017). *Future population estimation: Major population indicators*. Retrieved from <http://kostat.go.kr/>
- Yoon, J. S. (2003). *The effect of reminiscence therapy on communicative ability of dementia patients*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Daegu.

## The Effect of Reminiscence Therapy on Communication Ability of Elderly Patient With Alzheimer's Dementia

Kim, Soo-Jung\*, M.S., S.L.P., Chang, Hyun-Jin\*\*, Ph.D., S.L.P.

\*Dept. of Special Education, University of Daegu, Doctoral Course, Student

\*\*Dept. of Speech and Hearing Therapy,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Professor

**Objective** : Reminiscence program is a method to restore psychological stability for the elderly having dementia, and at the same time it makes the aged with dementia express themselves correctly by helping them to recollect their past life memor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n communication ability in applying the reminiscence program to elderly patients with Alzheimer's dementia.

**Methods** : The subject were 4 patients whose Alzheimer's dementia of moderate. This experiment was designed with pre-stage, treatment-stage, post-stage. The reminiscence therapy was compose of reminiscence activities of their live; in their childhood, adolescence, adulthood, and senescence. The therapy was delivered 30 times for 15 weeks.

**Results** : The result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after reminiscence therapy, recognition ability was improved. Second, after reminiscence therapy, emotional side was improved. Third, after reminiscence therapy, communication ability was improved.

**Conclusion** : In this study, the reminiscence therapy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improvement of communication skills among the elderly with Alzheimer's dementia. Based on the reminiscence therapy, it is thought to be very helpful in improving the communication ability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in the future.

**Key Words** : Alzheimer's, Communication, Dementia senior, Reminiscence

Appendix 1. Holden Communication 평가 척도

1. 회화

점수	0점	1점	2점	3점	4점
1. 반응	누구와도 대화를 시작해 집중한다.	친한 사람에 대한 반응은 양호하다.	주위의 사람에게 어느 정도 반응한다. 자신이 먼저 대화를 시작하지 않는다.	혼란스러워 하며 이해력이 부족하다.	거의 또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2. 과거의 사건에 대한 관심	장기산 상세하게 과거의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한다.	그럭저럭 이야기할 수 있다.	단편적, 조금 곤란한 묘사한다.	혼란이 나타나며 또는 관심을 나타내지 않는다.	반응 없음
3. 즐거움	상황과 달성에 따라 진심으로 기쁜 듯이 행동을 한다.	웃으며 관심을 나타낸다.	반응하지만 희미하게 웃거나 은밀한 표정을 지을 뿐이다.	거의 웃지도 않는다.	반응하지도 않고 울기만 한다.
4. 유머	먼저 상황을 설정하거나 이상한 얘기를 한다.	이상한 상황이나 이야기를 즐긴다.	반응할 때까지 설명과 격려를 필요로 한다.	단지 주위사람에게 맞춰서 씩 웃는다.	반응 없음 또는 거절

2. 인지력과 인식

점수	0점	1점	2점	3점	4점
5. 이름	병동의 대부분의 사람의 이름을 말할 수 있다.	다수의 이름을 말할 수 있다.	항상 일개위 주어야 한다.	자신의 이름 밖에 모른다.	자신의 이름도 모른다.
6. 일반적인 소재의식	일, 월, 날씨, 시간, 장소를 말할 수 있다.	한가지나 두 가지를 잊어버린 적이 있다.	노력하면 항상 두 개는 옳게 얘기할 수 있다.	확실하지 않다. 겨우 하나는 얘기할 수 있다.	매우 혼란스러워 한다.
7. 일반적인 지식	최근의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일반적인 지식 양호하다.	특이한 사건만 알고 있다. 일반적인 지식은 중간정도이다.	최근의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일반적인 지식이 부족하다.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서 혼란스러워 한다. 불안해하거나 혼란해 한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다.
8. 게임에 참가 하는 능력 등	쉽게 게임 등의 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	세세한 지도를 요구하지만 참가할 수 있다.	단순한 활동에만 참가할 수 있다.	불안해하거나 혼란스러워 한다.	참가 할 수 없거나 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3. 커뮤니케이션

점수	0점	1점	2점	3점	4점
9. 발언	문제없음	약간의 망설임 또는 기묘한 단어 사용한다.	조금만 말하고 주로 불평한다.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기묘한 발음, 끄덕일 수 있다.	단어를 거의 또는 전혀 말하지 않는다.
10. 대화의욕	쉽게 대화를 할 수 있다.	똑바로 말하는데 노력이 필요하다.	이야기하듯이 하지만 필요한 것은 행동으로 전달한다.	웃는다. 운다. 공격적이다.	의욕 없음
11. 대상에 대한 흥미, 반응	흥미를 가진다.	어렵지만 흥미를 보인다.	다소 흥미를 보이지만 애매하다.	운다. 대상을 거절한다. 노여워한다.	반응 없음. 이해 할 수 없음
12. 의사소통의 성격	의견을 말한다. 똑바로 전달한다.	몸짓과 소리를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약간의 사람에게만 전달한다.	초조해하며 화낸다.	의욕 없음